

## 미리 준비하는 목장관리

〈자료제공 : 국립축산과학원 낙농과〉

### ◆ 일반 사양관리

올해 단풍은 예년에 비해서 일찍 시작하고 또한, 매우 곱게 물들 것이라고 한다. 이는 하루의 일교차가 심하고 일조량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에는 가축관리에 특히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동절기를 대비하여 수조와 수도관의 누수를 점검하여 추워지기전에 조치하여 겨울철 수도동파나 급수문제가 없도록 해주어야 할 것이며, 우사, 송아지방, 분만실 등을 수리하고, 여름철에 사용하던 그늘막, 스프링쿨러, 송풍기 등을 철거 또는 점검하여 내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잘 보관하여 둔다. 바람직한 축사환경 관리를 위해 낮에는 햇볕이 충분히 들어오도록 하고, 항상 통풍 및 환기가 잘되도록 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 ◆ 사양관리

무한경쟁시대에 사는 우리 낙농가들이 생존할 수 있는 길은 두당 생산성 향상과 생산비 절감 외에는 달리 대안이 없다. 기호성이 낮은 조사료일지라도 카타기를 이용하여 잘라서 공급하는 것은 허실량도 크게 줄여주며 섭취량도 20%이상 증가하므로 고가시대의 지혜로운 사료관리 방법이다. 새로 제조한 사일리지를 급여할 때는 조금씩 증량하면서 매주 1회 2~3일간 중조와 산화마그네슘을 두당 100g 정도씩 급여하여 반추위내 산도를 적정하게 유지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10월 이후 분만하는 송아지와 어미소의 처치는 특히 중요한데, 난산의 조기발견과 조치로 어미소와 송아지의 분만 시 스트레스와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제1의 것이다. 갓 태어난 송아지는 급격한 체온저하에 처해지므로 피부를 신속하게 건조시켜주고 보온을 위해 바닥의 찬기운도 막아주어야 한다. 주변 환경의 위생과 포유병 등의 기구의 위생적 관리로 송아지가 가급적 감염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분만 직후 어미의 초유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급여하고 한나절(12시간)이 지나기 전에 송아지 체중의 6~10%의 초유를 섭취하여 질병저항성을 갖도록 해 주어야한다. 이는 송아지의 장내 세포흡수능력이 출생 후 12시간이상이 지나면 초유중의 면역물질 흡수율이 1%이하로 급격히 저하되어 그 이후에는 섭취해도 소용이 없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허약송아지(weak calf syndrome)는 저체온증, 포유능력저하, 무기력, 설사 등의 증세를 보이고 출생 후 2~3일 이내 폐사한다. 이때는 송아지의 피부건조와 기력회복을 위해 마사지와 건조작업을 서둘러 시행하고 조금씩 자주(2시간간격 400~800ml 씩) 어미의 초유를 먹여주고 적절한 치료를 해주면 회복하여 살릴 수도 있다. 이 같은 세심하고 정성을 다한 가축관리가 목장의 경쟁력강화의 씨앗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분만우는 관절이 약하므로 회복하기 전까지는 가급적 이동이나 다른 소와의 경쟁을 피할 수 있도록 착유방법의 개선이나 우사 바닥 미끄럼 방지 등의 환경적 관리가 필요하다.

#### ◆ 방역 및 위생관리

환절기의 큰 일교차는 추위, 더위를 함께 스트레스로 작용하므로 우사내 환경은 항상 쾌적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자우 및 육성우는 환경온도 변화에 의한 스트레스로 호흡기질환의 발생이 증가하므로 환축을 미리 관찰하고 조기에 치료하여야 한다. 호흡기질환이 다발하는 농장의 경우 우사환경을 개선하고 특히 이유스트레스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호흡기질환 예방 백신의 접종을 고려하여야 한다. 시판되는 호흡기혼합백신은 호흡기질환 뿐만 아니라 번식질환과 소화기질환을 일으키는 소 바이러스성 설사병을 함께 예방하므로 우군의 질병저항성을 높일 수 있다. 동절기에 접어들수록 구제역과 같은 바이러스의 활동이 증가하므로 철저한 차단방역이 필요하다. 먼저 시기에 맞게 구제역 백신을 접종하여야 한다. 구제역백신은 건강한 개체를 대상으로 위생적으로 접종하며 접종후 부작용 유무를 잘 관찰한다. 또한 농장에 출입하는 차량 및 방문자에 대해 소독을 실시하여 질병이 전파되지 않도록 신경 쓴다. 방역소독시설은 작동이상유무를 점

검하고 결빙방지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권장된다.

#### ◆ 초지 및 사료작물

월동 사료작물을 재배할 경우 월동 전·후 포장관리를 잘 해주어야 하는데, 월동 전·후 진압은 필수적이며, 습해를 받지 않도록 배수로 관리를 잘 해야 한다. 월동 전·후에 진압만 잘 해주어도 조사료 생산량을 최소 15% 이상 높일 수 있다. 이른 봄 진압을 하면 서릿발에 의해 작물의 밑동이 솟구쳐 올라 드러나 있던 뿌리를 토양과 밀착시켜 봄철 건조피해를 방지하고 뿌리 발육과 가지치기(분얼)를 촉진시켜 수량을 높일 수 있다. 월동에 들어갈 때 생육은 초장 15~20cm, 분얼경 수 3~5개 정도가 알맞다. 파종을 빨리 해서 월동 전 초장이 40cm 이상이면 한 번 예취 이용하고 재생 후 월동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봄철에 웃거름을 주는 적기는 월동 후 생육이 시작될 때이며, 남부지방은 2월 중순, 중부지방은 2월 하순, 중북부지방은 3월 상순 정도가 적당하다. 초지가 있는 농가에서는 10월 중하순에 예취 높이 7cm 정도로 예취하고 웃거름을 주어야 월동을 잘 할 수 있다.

〈집필자 : 국립축산과학원 낙농과 윤호백, 이현준, 정영훈〉